

한국생약보

믿고 찾을 수 있는 곳!

한국생약협회 직영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고품질의 국산한약재만을 엄선, 소비자
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TEL: (02)967-4984

발행인 겸 편집인
인쇄인

황인구
장옥환

발행소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1140-55
TEL: 967-8133 FAX: 965-0643

2001년 8월 1일

THE HANKOOK-SAENGYARK BO

(1975년 6월 20일 창간) 제246호

토종약초 수입산과 차별화된 브랜드화 시급하다

품질경쟁력 확보 우선, 재배단계부터 관리필요

“국산한약재를 찾는 소비자
들은 많지만 믿고 구입할 국
산 약재는 귀하다”

최근 한약재시장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공통된 견해다. 그만큼 시중
에서 수입한약재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생각하
는 것보다 훨씬 수입약재의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것을 반
증하는 얘기다.

직접적인 원인은 식품원료
용 수입약재의 무분별한 반입
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국내
생약농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
에서 일관성있는 정책을 내놓
지 못한 정부의 무심함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
계시장을 목표로 국산한약재
의 품질경쟁력 확보 노력에
안일했던 농민들도 그 책임으

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중국의 WTO가입이 목전에
와있는 상황에서 지금부터라
도 국산한약재의 경쟁력제고
방안과 생산기반보호를 위한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최근 해외 농산물의 수입확
대와 국내 농산물간 경쟁심화
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농
산물 브랜드 개발과 판매전략
이 활발해지고 있다.

브랜드화된 농산물은 그렇
지 않은 농산물에 비해
20~30% 이상 높은 값을 받
고, ‘얼굴있는 농산물’로 소비
자에게 신뢰성을 확보하여 수
요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산 한약재의 경우도 차별
화된 브랜드화 전략이 필요하
다는 지적이다.

최근 수입약재의 무분별한
범람으로 국내 생약생산농민
들의 생약재배를 포기하는 농
가가 속출하고 있고 재배면적
도 갈수록 급감하고 있는 추
세속에서 고품질의 질 좋은 국
산 한약재를 확보하는데 그만
큼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
문이다.

국산한약재의 브랜드화 필
요성에 대한 언급은 7월13일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최로 서
울 외교센터에서 개최된 ‘한
약품질표시와 감별표준화’ 정
책세미나에서도 제기된 내용
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고
병섭 연구원은 “각국은 식물
종의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을 최대의 한약재 수출국
으로 지정하고 있어 국산 한
약재의 차별화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질 좋은 국산 한약재
에 대한 보존과 확보가 시급
하다는 여론속에서, 대외경쟁
력 확보 차원에서 수입산과
는 차별화된 국산한약재의 브
랜드화는 시급한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전라북도 이승엽씨(58세 생
약협회 전북도지회장)는 “식
품원료로 반입된 수입약재의
변칙유통 내지는 국산과의 혼
용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
한 상황에서 국내 생약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산 한약
재가 수입약재와 섞이지 않고
제값받고 유통될 수 있는 시
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산한약재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
안연구가 우선 선행돼야 하고
이어 과학적인 근거 하에 국
산한약재의 품질 차별화전략
을 세우고 브랜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약재의 경우 양약과 달리
농민이 직접 생산해내는 농산
물인 점을 감안 재배단계서부
터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그
같은 맥락에서 농산물품질인
증제를 도입, 한약재 품질인
증제 시행 필요성도 설득력있
게 제기되고 있다.

세미나에서 제기된 한약재
품질인증제 도입방안의 하나
는 약초재배단체나 생산농가
가 희망하는 경우 생산여건과

관리상태를 심사하여, 생산·
출하과정 조사를 거쳐 적격품
에 한해 품질인증 표시를 하
게 함으로서 국산 한약재의
품질경쟁력 제고는 물론 고품
질 국산한약재에 대한 소비자
의 신뢰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최근 충북 제천시에서 도입
시행중인 ‘생산증명제’도 같
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도. 제천시는 관내 재배농
가들이 생산한 약초에 대해서
는 엄격한 품질관리와 선별포
장, 생산자조직을 통한 자체
품질확인 작업을 거쳐 출하하
고 약초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전량 리콜해주는 방식의
‘생산증명제’를 도입 이미 시
행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고병희
원장은 “한약의 품질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동일조건에서
의 재배를 기대하는 것으로
그 기원이 확실하고 균일한
약효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
러지려면 한약재 생산기반 보호
및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산약재의 대
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관리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자국내에서 재
배되는 생약에 대해서는 의료
보험 수가를 고가로 책정해
줌으로써 생약재배농가를 보
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도 국산한약재를 많이 소비
하는 제약회사나 한방병의원
등에 세금공제 혜택 등 인센
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국산한
약재의 소비촉진을 유도할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문정희)

기 면 안 내

- 긴급진단/수급조절제도 폐지위기
그 대책은 없나? 3면
- 중국약재 시장동향 4면
- 앞서가는 생약인
이용황 경기도지회장 5면

백작약 실생묘 분양합니다!

생약협회 전북지회에서는 그동안 수입개방화에
대비 국산 한약재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 우리 지회에서는
우량품종 육성보급을 위해 정성들여 육묘한
백작약 실생묘 1백만주를 분양하오니
우리생약살리기와 약초재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
기존의 생산농민들 중에서도 작약재배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재배도 가능

문의전화 : 063-282-8611, 011-9642-1494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2가 557-13 이승엽

중국 약초재배단지 견학안내

중국의 WTO 연내 가입과 한약재시장의 완전개방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
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약초재배현황 파악과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
생약농업 활로 모색을 위해 우리협회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중국약초
재배단지 및 약재시장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회원님
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01년 8월29~9월2일(4박5일)
- 참가비 : 85만원(비자발급비 포함)
- 일정 : 북경 약용식물연구소, 안국 약재시장(동방약성),
사천성 약초재배단지 등

※세부일정 및 기타사항은 협회 사무국(02-967-81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